

의원·약국의 진료비·약제비도 실손24 통한 전산청구가 가능해집니다.

■ 실손24 서비스란?

- 「보험업법」 개정(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, '23.10.24)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야 합니다.
- ※ 「보험업법」 상 시행시기 : '24.10.25. 이후 병원급 시행(1단계) ⇨ '25.10.25 이후 의원급 시행(2단계)
- 실손24는 **병원에 전산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** 실손보험에 가입된 **환자가 직접 실손24 앱·웹(홈페이지)**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합니다.



■ 실손24 특징점



■ 실손24 참여 관련 문의 : 전송대행기관(☎1811-3000)

■ 실손24 관련 Q&A

Q1. 실손24 전산청구 가능 서류는?

-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(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)에 따른
①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,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,
③ 처방전입니다.
- ※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앱·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(첨부)할 수 있습니다.

Q2. 실손24 연계시 의료기관의 혜택은?

-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'26년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.2%p 감면('26.1월~)하고,
- 실손24 참여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~5% 할인('25.11월~)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※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* 참고
- * 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, 의약계,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」 (2025.9.5.(금))

Q3. 실손24 연계시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지?

-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, 의료기관은 연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또한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업체에는 시스템 개발비,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,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Q4. 실손24와 연계하려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?

- (연동된 EMR업체일 경우) 실손24 서비스 오픈 방법은 EMR업체별로 일부 상이하여 사용하시는 EMR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실손24와 연계된 EMR업체 및 제품명 <붙임> 참고
- (미연동된 EMR업체일 경우)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'25.10.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할 의무가 있으며,
- 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되어있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.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□ 치과

참여 EMR업체명	제품명
덴탑정보기술	아이프로
	아이프로클라우드
앤드컴	PapyrusEMR
	plusAlpha
오스텍임플란트 주식회사	OneClick
휴먼소프트랩	덴트로

